

성인자녀-부모관계와 부모의 인지기능 : 구조적·연계적 결속을 중심으로

Structural and Associational Solidarity Between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Impact on Older Parents' Cognitive Functioning

최희정(Heejeong Choi)¹, 민주홍(Joohong Min)^{2*}

¹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Albert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tructural (coresidence, proximity) and associational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frequency of contact via phone, email or letter) solidarity between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may influence older parents' cognitive functioning. Adult children may help delay older parents' cognitive decline by promoting healthier lifestyle, engaging parents in complex everyday problem solving,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he data consisted of men and women 65+ at Wave 1 who had at least one child 20+ and participated in at least two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N=3,961). Cognitive functioning was measured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Fixed effects models were estimated using the xtreg procedure in STATA.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es in proximity with at least one adult child may lead to enhanced cognitive functioning among older parents. Neither transitioning to coresidence with at least one adult child nor increases in frequency of contact with at least one non-resident adult child was associated with changes in older parents' cognitive functioning. With older parents' increasing preference for living close by, but not necessarily living with adult children, greater proximity may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reciprocal support exchang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leading to better cognitive functioning of older parents.

▲주제어(Key words):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ing), 성인 부모-자녀관계(adult child-older parent relationships), 세대 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지리적 근접성(proximity), 동거(coresidence)

I. 서론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인구 고령화로 성공적인 노후에 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치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치매는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만성질환 중에서도 그 증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노인과 가족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10명 중 한명이 치매노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Kim et al., 2012)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4).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기능저하는 치매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

* Corresponding Author : Joohong Min, Department of Human Ecology, 322 Human Ecology Building,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T6G 2N1, Tel: +1-780-492-4191, E-mail: Joohong@ualberta.ca

어 치매예방 및 지연의 차원에서 중요한데,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4명 중 1명이 인지기능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2).

인지기능의 유지와 관련하여 취미나 여가활동, 종교생활과 같은 사회참여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J. Hwang & S. Kwon, 2009; L. Fratiglioni, S. Paillard-Borg, & B. Winblad, 2004). 사회활동이 복잡한 관습과 규칙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등 다차원적인 인지기능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가족을 제외한 사회활동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를 구별하지 않고 한데 묶어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회적 접촉이나 지지를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K. A. Ertel, M. M. Glymour, & L. F. Berkman, 2008; T. E. Seeman, D. M. Miller-Martinez, S. S. Merkin, M. E. Lachman, P. A. Tun, & A. S. Karlamangla, 2011).

그런데, 노년기의 가족관계 특히 성인자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인지기능을 성인자녀와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의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어 배우자와 자녀위주로 재편되는데, 이는 단지 건강상의 제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노년기의 발달적 요구에 기인한다(L. L. Carstensen, D. Issacowitz, & S. T. Charles, 1999; F. R. Lang, 2001). 가족관계와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탐색한 극소수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배우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가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J. H. Son, D. H. Han, & B. S. Kee, 2013; B. M. van Gelder, M. Tijhuis, S. Kalmijn, S. Giampaoli, A. Nissinen, & D. Kromhout, 2006). 위 결과에 미루어 성인자녀 역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세대는 분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자녀-부모 관계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활동, 사회관계망, 배우자 유무를 인지기능에 연결시킨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성인자녀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성인자녀와 부모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가족구조와 의식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통계치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3/4이 자녀와 동거하였으나 2010년에는 그 비율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노인 단독가구는 열 가구

중 한 가구에서 세 가구 중 하나로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3). 이러한 경향은 중년 세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와 60대 중년 기혼남녀의 3/4 이상이 10년, 20년 후 자녀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M. Chin, M. Sung, & J. Byun, 2014). 한편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4명이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혹은 손자녀 양육 및 가사를 돕기 위해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13),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의 경우 1/3이 별거의 이유를 '편해서'라고 하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재 성인자녀-노부모의 동거가 많은 경우 자녀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자녀-노부모와의 별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성인자녀와 부모관계가 소원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 듯하다.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비율이 2008년 1/5에서 2012년 1/4로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3).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변화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의 별거추세 속에서 자녀가 노부모의 인지기능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인지기능은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사회적 교류 외 라이프스타일(건강행동),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자녀는 이 모두와 관련이 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 별거하는 자녀의 경우 이들의 지리적 근접성,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가 노부모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자녀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II. 본론

1. 개념적 틀

세대 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은 가족관계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 관한 개념적인 틀로써 성인자녀-부모관계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Bengtson이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당시 노년기의 부모는 자녀로부터 유리되어 양로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는 지난 40여년에 걸쳐 성인자녀-부모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는 평생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V. L. Bengtson, 2001; V. L. Bengtson & K. D.

Black, 1973; V. L. Bengtson & R. E. Roerts, 1991; V. L. Bengtson & S. S. Schrader, 1982; M. Silverstein & V. L. Bengtson, 1994). Bengtson은 세대 간 결속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는데, 구조적(structural), 연계적(associational), 애정적(affectual), 기능적(functional), 규범적(normative), 그리고 합의적(consensual) 측면이 그것이다(V. L. Bengtson & R. E. Roerts, 1991). 구조적 결속은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나 실제 가족원 수 등을, 연계적 결속은 직접적인 만남, 전화나 이메일 접촉, 혹은 함께 하는 활동의 유형을, 애정적 결속은 정서적 친밀도를, 기능적 결속은 세대 간 자원 교환의 빈도나 상호호혜성을, 규범적 결속은 가족 내 자신의 역할에 부여하는 의미나 가족에 대한 의무감을, 마지막으로 합의적 결속은 태도나 가치관에 대한 부모자녀 간 유사성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에 관한 선행연구(T. Y. Arbuckle, D. P. Gold, D. Andres, A. Schwartzman, & J. Chaikelson, 1992; S. S. Bassuk, T. A. Glass, & L. F. Berkman, 1999; K. A. Ertel et al., 2008; T. E. Seeman, T. M. Lusignolo, M. Albert, & L. Berkman, 2001)에 따르면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동거여부, 지리적 근접성)·연계적 결속(직접적인 만남, 전화나 이메일 교환을 통한 연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부모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일상생활문제나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의력,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등이 자연스럽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성인자녀는 노부모의 인지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자녀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살수록, 자주 만나거나 연락할수록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둘째,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살수록, 자주 만나거나 연락할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건강에 해가 되는 생활습관은 자제하고, 정신적·신체적·인지적 문제가 나타나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양상태가 좋고 건강관리나 병원정기검진 등과 같은 건강관련 행동에 보다 적극적이며(Y. M. Jung, & J. H. Kim, 2004; G. Kim, 2011) 인지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Y. M. Jung, 2006; Y. M. Jung, & J. H. Kim, 2004). 인지기능 쇠퇴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T. E. Seeman et al., 2001)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족의 관심은 직간접적으로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노년기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에 대한 발달적 요구가 강한 시기(Carstensen et al., 1999; F. R. Lang, 2001)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이 될 수 있다. 인지기능에 관한 문헌들은 스트레스가 인지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강조하고 있는데(B. L. Plassman, J. W. Williams, J. R. Burke, T. Holsinger, & S. Benjamin, 2010)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만성적인 질병과 같이 노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M. Silverstein & V. L. Bengtson, 1994). 동시에, 자녀의 실직이나 이혼은 부모에게 강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K. L. Fingerma, Y. P. Cheng, K. Birditt, & S. Zarit, 2012; K. Pillemer & J. J. Suitor, 1991) 자녀가 초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인지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인자녀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살수록, 자주 만나거나 연락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인자녀의 스트레스가 노부모에게 보다 쉽게 전이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성인자녀-부모관계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을 포괄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마저도 아직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인지기능을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없어, 성인자녀-부모관계에 대한 연구는 종속변수의 범위를 넓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건강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들의 예측변수가 상당부분 중복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외 신체건강(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사회경제적 지위(특히 교육수준), 라이프스타일(알코올 중독과 운동부족) 등이 인지건강과 정신건강을 동시에 예측하는 변수이다(R. J. Anderson, K. E. Freedland, R. E. Clouse, & P. J. Lustman, 2001; J. S. House, K. R. Landis, & D. Umberson, 1988; V. Lorient, D. Deliege, W. Eaton, A. Robert, P. Philippot, & M. Anseau, 2003; T. E. Seeman, et al., 2001; A. Ströhle, 2009).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가 노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K. L. Fingerma et al., 2012; K. Pillemer & J. J. Suitor, 1991) 성인자녀-부모관계와 노부모의 인지기능 간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정신건강과 인지기능 두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그 양이 제한적인 편이지만 (E. Jung & K. H. Choi, 2013; S. Lee, 2013; B. H. Kim & C. H. Nam, 1999), 국외 연구의 경우는 이보다 활발하다. L. M. McDermott and K. P. Ebmeier(2009)는 22개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인지기능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D. Bunce, P. J. Batterham, H. Christensen, & A. J. Mackinnon, 2014; F. Panza et al., 2009)가 있는 반면 이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보고한 연구(H. J. Lee & S. K. Kahng, 2011)도 있어, 관계의 방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1)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을 살펴 본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나 지지가 결핍된 상태인 외로움에 초점을 두었다. 친구와 가족을 모두 포함한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특히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거나 1-2명에 불과한 경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T. Y. Arbuckle et al., 1992; S. S. Bassuk et al., 1999; K. A. Ertel et al., 2008) 가족과 친구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E. Seeman et al., 2001; T. E. Seeman et al., 2010). 반대로 외로움은 전반적인 인지능력, 정보처리속도,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와도 관련성이 있다(L. Boss, D. H. Kang, & S. Branson, 2015; J. T. Cacioppo & L. C. Hawkely, 2009)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 수준을 높이며, 높은 코티솔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뇌세포를 손상시켜 그 결과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L. Boss et al., 2015).

2)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연계적 결속과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

가족관계로 초점을 좁혀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정신건강에 연결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관련 변수와 인지기능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동거에 초점을 두었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독거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 M. Jung, 2006; Y. M. Jung & J. H. Kim, 2004) 이 연구들은

모두 편의표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인지기능과 연결시킨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다(J. R. Keene & C. D. Batson, 2010).

반면, 정신건강에 성인자녀-부모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본 국내 연구의 상당수가 전국 혹은 지역단위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아래의 문헌고찰은 이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역시 앞서 언급된 인지건강에 대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배우자유무와 성별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자녀와의 동거가 고독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만 유효하였으며(G. H. Han & S. D. Yoon, 2001),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노인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 Y. Lee, 2009; S. H. Yoo, 1997). 한편 자녀와의 동거 자체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M. A. Lee, J. Kim, & J. H. Kang, 2011),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G. H. Han & S. D. Yoon, 2001). 구조적 결속의 또 다른 측면으로 지리적 근접성의 경우 우울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계적 결속의 경우 자녀와의 연락이 빈번하면 우울감이 낮다는 연구결과(K. H. Jeong, J. S. Kim, & J. H. Yun, 2013)가 있다. 그러나 동거 외에는 대표성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선행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연구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M. van der Pers, C. H. Mulder, & N. Steverink, 2015), 성인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빈도와 같은 연계적 결속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 A. Mancini & R. Blieszner, 1989).

결론적으로,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노부모의 인지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노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정신건강과 인지기능 간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성인자녀-부모관계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별거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동거여부만을 살펴보았을 뿐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를 탐색하지 못하였으며 편의표집에 의존한 횡단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이들은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를 조절변수로 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성별과 배우자 유무를 성인자녀-부모관

계와 정신건강 간 관련성을 중재하는 조절변수로 보았는데 인지기능에 이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연령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심리정서적 요구가 증가함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정신건강에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성별, 배우자 유무 뿐 아니라 연령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자녀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성인자녀-부모관계에서의 변화는 부모의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 1) 성인자녀와의 동거로의 전이는 부모의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 2)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의 변화는 부모의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 3)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 빈도의 변화는 부모의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 4)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연락 빈도의 변화는 부모의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1)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는 부모의 연령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2)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3)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는 부모의 혼인상태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격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차 조사는 2006년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10,254명의 면접 조사가 완료되었고 사망, 조사 거절, 추적 실패 등의 경우를 제외한 7,486명이 2012년 조사에 응답하였다. 고령화

연구패널은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대상자 자녀 개개인과의 동거여부, 지리적 근접성, 만남 및 연락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 논문의 연구주제를 탐구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20세 이상 성인자녀가 적어도 한명 있는 65세 이상 남녀 3,961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이 1-4차년도 6년 동안 평균 3차례 제공한 총 12,798 관측치(time-series observations)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종속변수.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 M. F. Folstein, S. E. Folstein, & P. R. McHugh, 1975)의 한국어 버전(K-MMSE)을 사용하여 인지기능을 측정하였다. MMSE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지남력, 단·장기 기억력, 수리력, 물건인식력, 언어력, 명령수행력, 언어실천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T. N. Tombaugh & N. J. McIntyre, 1992). 이 척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0-30점으로 24점 이상을 정상, 18-23점은 인지기능 저하, 17점 이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된다. MMSE는 지역사회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하는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주요독립변수.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연계적 결속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리적 근접성, 만남, 연락의 4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부모들은 최대 10명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동거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적어도 한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지리적 근접성은 동거하지 않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자녀와의 거리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4), 1시간 이내(=3), 2시간 이내(=2), 2시간 이상(=1)으로 하여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도록 코딩하였다. 얼굴을 직접 보는 만남이나 전화, 편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한 연락의 빈도 역시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1주일에 4회 이상(=4), 적어도 1주일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3),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2), 적어도 일 년에 한번에서 대여섯 번 정도(=1), 일 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거나 연락하며 지내지 않는 경우(=0)로 코딩하여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코딩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동거변수와 유사하게 가장 가까이 사는 자녀, 가장 자주 만나는 자녀, 가장 자주 연락을 취하는 자녀의 정보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가 있으며 한명의 자녀(A)와

동거하고 두명의 자녀(B, C)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동거 변수는 1값을 취하게 되고, 지리적 근접성, 만남이나 연락도 유효한 값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 근접성의 값은 B로부터, 만남의 값은 C로부터, 연락의 값은 다시 B로부터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지리적 근접성의 경우 B, 만남의 경우 C, 연락의 경우 B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세 명의 자녀 모두와 동거를 하면 동거 변수는 유효한 값(=1)을 취하게 되지만 다른 변수들은 모두 결측치를 취하게 되므로, 모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전체 관측치 time-series observations의 2% 정도)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 연락과 만남의 빈도에 최대값(=4)을 주고 추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일관된 패턴의 결과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동거, 지리적 근접성,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수치를 구해본 결과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변수.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를 중재변수로 보았는데 연령은 년 수로, 성별은 남성(=0)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더미코딩하였고,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을 준거집단(=0)으로 하여 이혼/별거, 사별, 독신을 한데 묶어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여부, 우울감, 신체기능장애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신체건강, 인지기능은 서로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B. Koo, 2013; T. E. Seeman et al., 2001)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연계적 결속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근로여부는 '현재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씀합니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로,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우울감은 10문항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CES-D10; L. Radloff, 1977) 척도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지난 일주일간 두려움, 우울, 외로움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기능장애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과 총 7문항으로 구성된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 W. Won et al., 200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청소, 식사, 빨래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필요할 경우 1로, 도움이 필요 없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필요할 경우 1로, 도움이 필요 없을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장애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각 조사년도 우울감의 신뢰도는 .73에서 .86 사이였으며 우울감과 신체기능장애 모두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성인자녀와의 동거, 지리적 근접성 및 만남이나 연락 빈도에서의 변화가 인지기능의 변화와 연결되는지 검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며 개인내적변화(intraindividual change)의 변량(variation)에 의해서만 회귀계수가 산출된다는 특징이 있다(P. Allison, 2002). 이 모델의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D. R. Johnson, 1995),

$$(Y_{it} - Y_i) = b(X_{it} - X_i) + e_{it}, i = 1, \dots, n$$

$Y_i = 1/T \sum Y_{it}$ (the mean of Y for the i^{th} individual across the t waves)

$X_i = 1/T \sum X_{it}$ (the mean of X for the i^{th} individual across the t waves)

성별(여자는 1, 남자는 0으로 코딩)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time-invariant) 변수의 값을 ($X_{it} - X_i$)항에 대입하면 0의 값을 취하게 되어 모델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정효과모형의 가장 큰 장점과 연결된다. 독립변수와(본 연구의 경우 성인자녀-부모관계)와 종속변수(인지기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측정하여 통제변수로서 모델에 포함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구자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모든' time-invariant 변수가 자동적으로 통제되게 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제 3의 변수(third factor)의 영향력 예를 들어 코호트, 선별효과(selection effect), 유전적 성향, 지능, 성격, 과거의 경험 등에 기인한 개인차(inter-individual variability)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회귀계수의 편파성(bias)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 Allison, 2002;

D. R. Johnson, 1995).

Time-varying 변수의 경우 예를 들어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를 생각해보면, 이들의 평균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이 개인차는 위의 공식에서처럼 평균값이 각 관측치에서 제해짐으로써 통제되고(즉 어떤 사람이 '남과 비교하여' 연락을 자주 주고받느냐는 통제된 상태에서), '본인의 평균치보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인지기능에 나타나는 변화가 어떠한가를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와 같은 더미변수의 평균치는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동거를 한 기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06년과 2008년에는 적어도 한명의 성인자녀와 동거상태였고 2010년과 2012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동거점수의 평균은 $0.5(=1+1+0+0/4)$ 가 되어 6년 중 약 3년간 동거했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모형은 이 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거상태의 변화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Time-invariant 변수의 효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정될 수 없으나 이들의 중재효과(예를 들어 성인자녀-부모관계와 부모 인지기능의 연관성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변화하는가)는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주효과'를 볼 수 없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time-varying) 변수로 모델에 포함되었다. 환언하면 6년간 4번의 조사 중 적어도 두 번 이상 참여하였으며 20세 이상 성인자녀가 적어도 한명이 있는 65세 이상 남녀의 경우 이들이 각 조사에서 제공한 모든 값이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분석은 STATA xtreg을 이용하였으며 고정자연구패널이 부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robust standard error를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는데 표 가운데는 2006년도, 오른쪽은 2006년에서 2012년 동안의 평균 기술통계치를 나타낸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73세로 여성이 분석대상자의 58%를 차지하였고 36%는 배우자가 없었다.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자녀수는 4명이었다. <Table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16%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1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인 31%를 훨씬 밑돌았다. 우울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4.15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기능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한 두개 정도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나타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주요독립변수를 살펴보면, MMSE 점수는 21.5점 정도로 평균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06년도에는 41%의 연구대상자가 적어도 한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들 중 적어도 한 명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들 중 적어도 한명과는 최소 1개월에 한 번 만나고, 1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근거리에 사는 자녀와 가장 자주 만나는 자녀와 가장 자주 연락을 교환하는 자녀는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nalytic Variables

Variable	Wave 1 (2006)			Wave 1-4 (2006-2012)		
	M	(SD)	Range	M	(SD)	Range
Age	72.96	(6.28)	65 - 105	75.14	(6.19)	65 - 107
Gender (1=female) ¹	0.58	(0.49)	0 - 10	0.58	(0.49)	0 - 10
Marital status (1=unmarried)	0.36	(0.48)	0 - 10	0.38	(0.48)	0 - 10
Work (1=working)	0.16	(0.37)	0 - 10	0.19	(0.39)	0 - 10
Depression (CES-D)	4.15	(3.47)	0 - 10	4.44	(3.18)	0 - 10
Functional impairment (K-ADL + K-IADL)	1.44	(3.62)	0 - 17	1.51	(3.85)	0 - 17
Cognitive functioning (K-MMSE)	21.48	(7.05)	0 - 30	20.63	(7.58)	0 - 30
Coresidence (1=living with at least one adult child)	0.41	(0.49)	0 - 10	0.37	(0.48)	0 - 10
Geographic proximity	2.88	(1.08)	1 - 40	2.88	(1.07)	1 - 40
Face-to-face contact	2.07	(0.98)	1 - 40	1.95	(0.97)	1 - 40
Contact with phone, email etc.	2.79	(0.82)	1 - 40	2.75	(0.79)	1 - 40

Not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2006-2012; individual N=3,961, time-series observations N=12,798).

¹Except for gender, all analytic variables were included in analyses as time-varying variables.

Table 2. Effects of Structural and Associational Solidarity on Older Parents' Cognitive Functioning¹

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u>Structural and Associational Solidarity</u>				
Coresidence (1=living with at least one adult child)	-0.05	0.03	0.23	0.02
Geographic proximity	0.22**	-0.62	0.17	0.30**
Face-to-face contact	-0.14	0.66	-0.04	-0.10
Contact with phone, email etc.	0.08	-2.22	-0.02	-0.06
<u>Covariates</u>				
Work (1=working)	0.54*	0.56*	0.53*	0.54*
Depression (CES-D)	-0.14***	-0.14***	-0.14***	-0.14***
Functional impairment (K-ADL + K-IADL)	-0.58***	-0.57***	-0.57***	-0.58***
<u>Moderators</u>				
Age	-0.33***	-0.42***	-0.33***	-0.33***
Female (1=female) ²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Marital status(1=unmarried)	-0.00	-0.00	0.00	0.07
<u>Structural and Associational Solidarity X Moderators</u>				
Coresidence X age		-0.00		
Geographic proximity X age		0.01		
Face-to-face contact X age		-0.01		
Contact with phone, email etc. X age		0.03		
Coresidence X female			-0.50	
Geographic proximity X female			0.08	
Face-to-face contact X female			-0.18	
Contact with phone, email etc. X female			0.15	
Coresidence X Marital status				-0.20
Geographic proximity X Marital status				-0.22
Face-to-face contact X Marital status				-0.13
Contact with phone, email etc. X Marital status				0.34
Constant	46.17***	53.39***	46.23***	46.30***
R ²	.31	.31	.31	.31

Not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2006-2012; individual N=3,961, time-series observations N=12,798).

¹Cognitive functioning was measured with the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²Except for gender, all analytic variables were included in analyses as time-varying variables.

* $p < .05$, ** $p < .01$, *** $p < .001$

같지 않을 수 있다.

2. 성인자녀-부모 관계의 구조적·연계적 결속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인자녀와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 또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 만남 및 연락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부모의 인지기능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리적 근접성만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Model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 중 적어도 한명과의 지리적 거리가 줄어들 경우 부모의 MMSE 검사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22, p < .01$). 반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다가 동거를 하게 되거나($b=-.05, ns$), 동거를 하지 않는 자녀와 보다 자주 만나거나($b=-.14, ns$) 연락의 빈도가 높아진 경우($b=.08, ns$) 부모의 MMSE 검사점수가 유의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및 중재변수를 살펴보면 근로여부, 우울감, 신체기능장애(ADL+IADL), 연령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일을 새로 시작한 경우 인지기능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우울감이 높아지거나 신체기능장애가 증가할수록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연계적 결속과 연령의 증가, 성별, 혼인상태 변화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있는데 모든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Models 2, 3, 4>.

V. 논의

본 연구는 확률표집에 의거해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해 현재 변화를 거듭하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지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거나, 노인의 인지건강을 가족과 연결시킨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한되어 있다.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그간 가족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중점을 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자녀-부모관계가 인지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이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변수를 탐색한 극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는 편의표집에 근거한 횡단자료에 기초하여 동거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별거가 급증하는 한국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거 외 지리적 근접성, 만남과 연락의 빈도 등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연계적 결속과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특히 확률표집에 의거해 수집된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코호트, 선별효과(selection effect), 과거의 경험, 성격 등 회귀계수에 편파성을 초래할 수 있는 time-invariant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결과 성인자녀와의 근접성만이 인지기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한 명의 자녀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될 경우 노부모의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다른 자녀와의 동거여부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 빈도에서의 변화가 통제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나아가 지리적 근접성과 인지기능 간 관련에 부모의 연령 증가, 성별, 혼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분석을 통해 혼인상태의 변화가 아닌 혼인상태 즉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혼상태를 유지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없었던 경우를 time-invariant 변수로 보고 그 중개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역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한명의 성인자녀와 같이 살게 되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 빈도가 증가하더라도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만남 및 연락 빈도의 변화가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는 자녀와 연락이 잦을수록 노인의 우울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K. H. Jeong, J. S. Kim, & J. H. Yun, 2013)와 일관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데이터와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횡단자료에 기초하여 개인 간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내 변화(intra-individual

change)에 대한 것이다. 만남 및 연락을 예로 들면 선행 연구에서는 남과 비교하여 연락이 빈번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울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면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락이 빈번해지는 경우 인지기능에 어떠한 변화(증감)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와 본 논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만남이나 연락 빈도의 '평균'(남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지)은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하지만 본인의 평균 연락빈도를 기준으로 빈도의 증감은 인지건강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빈도의 '증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보다 만남이나 연락이 빈번해질 경우 그 원인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전이가 심하여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T. C. Antonucci, H. Akiyama, & J. E. Lansford, 1998; K. S. Rook, 1984). 그런데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갈등적인 상황이 주의력,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을 요구하여 오히려 인지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M. Xu et al., 2015). 고령화연구패널에는 만남이나 연락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빈도라는 변수에는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인지적 자극의 상반된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즉 만남과 연락이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켜 인지기능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자녀와 동거를 시작하더라도 인지기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는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독거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Y. M. Jung, 2006; Y. M. Jung & J. H. Kim, 2004)와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고정효과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거기간이 통제되었지만 그 효과의 계수는 모델에서 추정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의 결과는 동거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D. B. Kim, B. S. Yoo, K. W. Lee, and H. J. Kim(2014)은 자녀와의 동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심리적 건강상태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우울감(G. H. Han & S. D. Yoon, 2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과는 동거가 인지기능에 미칠 수 있는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인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증가할 때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는데 반해 동거, 만남, 연락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혹은 자녀의 도움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인지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해석을 어렵게 한다. 이 결과는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M. van der Pers et al., 2015)와 관련이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및 현대 한국가족의 세대 간 자원교환의 방향성과 거주유형 선호도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자녀-부모 간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부양), 경제적 지원의 제공 및 수혜 유형을 살펴 본 J. J. Jung and G. E. Kim(2012)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인자녀와 부모 사이에 교환되는 자원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성인자녀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 선호도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혼자 살기 힘들어도 자녀와 살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동시에 10명 중 5명은 자녀와 근거리에서 살기를 희망하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이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은 경제적 불안감, 아플 경우 돌봄이나 부양의 문제, 심리적 불안감 등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Kim et al., 2012)와 연결된다.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가 축소되는 경험은 아마도 미래에 예상되는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지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근거리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 노부모의 몸과 마음 뿐 아니라 정신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만남이나 연락 빈도의 증가가 인지기능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성인자녀-부모 관계 연구 및 이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들이 지리적 근접성과 같은 구조적 결속에 주목한 이유는 만남이나 연락과 같은 연계적 결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이었다(D. J. Dewitt, A. V. Wister, & T. K. Burch, 1988). 즉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는 자녀와 보다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사시 돌봄이나 부양과 같은 기능적 결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본 연구는 지리적 근접성 자체가 만남이나 연락을 넘어 독립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을 밝혔다. 후속연구는 성인자녀-부모관계, 특히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기 위해 지리적 근접성의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지, 또 어느 세대가 주도하는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두 세대 간 물리적 거리는 어느 한 세대가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좁혀지는데 대체로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세대가 거주지를 옮기게 마련이다(A. Smits, 2010). 부모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자녀세대와 가까운 쪽으로, 성인자녀 세대의 경우 이혼이나 첫아이의 탄생이 부모세대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A. Smits, 2010; P. A. Rogerson, J. A. Burr, & G. Lin, 1997). 손자녀 양육의 경우는 비록 자녀세대의 요구이나 부모세대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A. Smits, 2010), 이처럼 누가 무슨 이유로 지리적 근접성을 추구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 요인이 부모의 심리적 건강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연구패널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MMSE(K-MMSE) 점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하여,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기억, 주의, 학습, 언어와 같은 인지기능의 세부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없었다. 둘째,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조적·연계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그리고 합의적 결속과 인지기능 간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에 규범적, 합의적 결속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애정적 결속을 측정하는 자녀관계 만족도 1문항(“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녀관계 만족도 문항을 포함하여도 결과의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밝혀둔다. 셋째, 기능적 결속의 경우 성인자녀-부모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교환에 대한 정보가 주로 금전적 측면과 손자녀 돌봄에 한정되어 있어 기능적 결속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감 있게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능적 결속과 인지기능과의 관계는 분명 후속연구에서 더 천착하여야 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지기능이 성인자녀-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성인자녀와의 근접성과 인지기능이 정적인 관계를 보여 연구결과가 역인과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J. Liang과 동료들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인지기능의 쇠퇴가 자녀와의 동거로 이어짐을 밝혔다(J. Liang, J. W. Brown, N. M. Krause, M. B., Ofstedal, & J. Bennett, 2005).

인지기능의 저하는 치매로 연결되어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예방

및 지연과 관련된 변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가족관계가 이러한 연구에서 제외된 측면과 함께 변화하는 가족구조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성인자녀-부모관계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비추어 성인자녀-노부모의 별거 경향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연구결과는 동거가 아닌 성인자녀와 가까이 사는 것이 노부모의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함을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연락이나 만남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용이해진 지금, 적어도 인지건강에 관한 한 성인자녀와 부모가 실제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llison, P. (2002).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 Anderson, R. J., Freedland, K. E., Clouse, R. E., & Lustman, P. J. (2001). The prevalence of comorbid depression in adults with diabetes: A meta-analysis. *Diabetes Care*, 24(6), 1069-1078.
- Antonucci, T. C., Akiyama, H., & Lansford, J. E. (1998).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Family Relations*, 47(4), 379-384.
- Arbuckle, T. Y., Gold, D. P., Andres, D., Schwartzman, A., & Chaikelson, J. (1992). The role of psychosocial context, age, and intelligence in memory performance of older men. *Psychology and Aging*, 7(1), 25-36.
- Bassuk, S. S., Glass, T. A., & Berkman, L. F. (1999). Social disengagement and incident cognitive decline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1(3), 165-173.
-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6.
- Bengtson, V. L., & Black, K. D. (1973).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ization. In P. Baltes, & K. W. Scha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pp. 207-234). New York: Academic Press.
- Bengtson, V. L., & Roberts, R.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856-870.
- Bengtson, V. L., & Schrader, S.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J. Mange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Social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pp. 115-186).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oss, L., Kang, D. H., & Branson, S. (2015). Loneliness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older adul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7(4), 541-553.
- Bunce, D., Batterham, P. J., Christensen, H., & Mackinnon, A. J. (2014). Caus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symptoms and cognition in a community-based cohort of older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12), 1583-1591.
-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 447-454.
- Carstensen, L. L., Issacowitz, D.,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 - 181.
- Chin, M., Sung, M., & Byun, J. (2014). The prospects of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50s and 60s about their future coresident family members, caregivers, and resid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27-41.
- Dewitt, D. J., Wister, A. V., & Burch, T. K. (1988). Physical distance and social contact between elders and their adult children. *Research on Aging*, 10(1), 56-80.
- Ertel, K. A., Glymour, M. M., & Berkman, L. F. (2008). Effects of social integration on preserving memory funct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US elderly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7), 1215-1220.
- Fingerman, K. L., Cheng, Y. P., Birditt, K., & Zarit, S. (2012). Only as happy as the least happy child: Multiple grown children's problems and successes and middle-aged parents'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2), 184-193.
- Folstein, M. F., Folstein, S. E., & McHugh, P. R. (1975).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3), 189-198.
- Fratiglioni, L., Paillard-Borg, S., & Winblad, B. (2004). An active and socially integrated lifestyle in late life might protect against dementia. *The Lancet Neurology*, 3(6), 343-353.
- Han, G. H., & Yoon, S. D. (2001).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1(2), 163-178.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 Hwang, J., & Kwon, S. (2009).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3), 971-986.
- Jeong, K.-Y., Kim, J.-S., & Yun, J.-H.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structure: Associational solidarity of parent-child for depression of par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0, 237-258.
- Johnson, D. R. (1995). Alternative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anel data in family research: Pooled time-series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4), 1065-1077.
- Jung, E., & Choi, K.-H. (2013). Depression and cognition in Korean older adults: Effects of gender and marital statu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17-31.
- Jung, J. J., & Kim, G. E. (2012).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895-912.
- Jung, Y. M. (2006). Comparison of attitude toward elders, cognitive level, and mood state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8(5), 727-736.
- Jung, Y.-M., & Kim, J.-H. (2004). Comparison of cognitive levels, nutritional status, depression in the elderly according to living situ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3), 495-503.
- Keene, J. R., & Batson, C. D. (2010). Under one roof: A review of research on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Compass*, 4(8), 642-657.
- Kim, B. H., & Nam, C. H. (199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ed with depressive scale among the Korean elderly who lives with spous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2), 173-192.
- Kim, D. B., Yoo, B. S., Lee, K. W., & Kim, H. J. (2014).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changes of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9, 91-120.
- Kim, G. (2011). The impact of family type on health behavior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1, 35-56.
- Kim, S. G., Kim, Y. G., Kim, H. R., Park, J. S., Son, C. G., Choi, Y. J., ... Yoon, A. R. (2012).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research paper 2012-5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o, B. (2013). The effects of cognitive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on ADL and IADL disability of the Korean old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2), 315-333.
- Lang, F. R. (2001). Regul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later adult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6(6), P321-P326.
- Lee, H. J., & Kahng, S. K. (2011).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 Group comparison by gend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 179-203.
- Lee, M.-A., Kim, J., & Kang, J.-H. (2011). Living arran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ult relationship. *Health and Social Science*, 29(6), 41-67.
- Lee, S. (2013). Buffering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relations in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6, 49-78.
- Lee, S.-Y. (2009).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emale and male elderly. *Gender and Culture*, 2(1), 125-149.
- Liang, J., Brown, J. W., Krause, N. M., Ofstedal, M. B., & Bennett, J. (2005). Health and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Americans: Does marriage

- matter?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7(3), 305-335.
- Lorant, V., Deliège, D., Eaton, W., Robert, A., Philippot, P., & Anseau, M. (2003).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7(2), 98-112.
- Mancini, J. A., & Blieszner, R. (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275-290.
- McDermott, L. M., & Ebmeier, K. P. (2009). A meta-analysis of depression severity and cognitive func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9(1), 1-8.
- Panza, F., Solfrizzi, V., Frisardi, V., Capurso, C., D'Introno, A., Colacicco, A. M., ... & Imbimbo, B. P. (2009). Disease-modifying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Drugs & Aging*, 26(7), 537-555.
- Pillemer, K., & Suitor, J. J. (1991). "Will I ever escape my child's problems?" Effects of adult children's problems on elderly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585-594.
- Plassman, B. L., Williams, J. W., Burke, J. R., Holsinger, T., & Benjamin, S. (2010). Systematic review: Factors associated with risk for and possible prevention of cognitive decline in later lif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3(3), 182-193.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gerson, P. A., Burr, J. A., & Lin, G. (1997). Changes in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121-136.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097-1108.
- Seeman, T. E., Lusignolo, T. M., Albert, M., & Berkman, L. (2001). Social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atterns of cognitive aging in healthy, high-functioning older adult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Health Psychology*, 20(4), 243-255.
- Seeman, T. E., Miller-Martinez, D. M., Merkin, S. S., Lachman, M. E., Tun, P. A., & Karlamangla, A. S. (2011). Histories of social engagement and adult cognition: Midlife in the U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suppl 1), 141-152.
-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4). Current service status report on registered client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Seoulites' hopes for later life: A survey report.
-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4). Does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The contingencies of declining health and widowhood. *Social Science & Medicine*, 38(7), 943-957.
- Smits, A. (2010). Moving close to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 the Netherlands: The influence of support needs. *Demographic Research*, 22(31), 985-1014.
- Son, J. H., Han D. H., & Kee, B. S. (2013). The effect of living with spouse on cognitive decline and depressive symptom in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17(1), 14-19.
- Statistics Korea. (2013). Korean Social Trends.
- Ströhle, A. (2009). Physical activity, exercise,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Neural Transmission*, 116(6), 777-784.
- Tombaugh, T. N., & McIntyre, N. J. (1992).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A comprehensive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0(9), 922-935.
- van der Pers, M., Mulder, C. H., & Steverink, N. (2015). Geographic proximity of adult children and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37(5), 524-551.
- van Gelder, B. M., Tijhuis, M., Kalmijn, S., Giampaoli, S., Nissinen, A., & Kromhout, D. (2006). Marital status and living situation during a 5-year period are associated with a subsequent 10-year cognitive decline in older men: The FINE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4), P213-P219.
- Won, C. W., Yang, K. Y., Rho, Y. G., Kim, S. Y., Lee, E. J., Yoon, J. L., ... & Lee, Y. S. (2002). The development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and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6(2), 107-120.
- Xu, M., Thomas, P. A., & Umberson, D. (2015). Marital

quality and cognitive limitations in late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gbv014.

Yoo, S. H. (1997). Effects of number of children and coresidence with married adult children on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Koreans: An analysis by gender and marital statu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7(2), 38-49.

Received: June 26, 2015

Revised: July 21, 2015

Accepted: July 25, 2015